

부산그랜드호텔 탐방기

조 용 태
 〈교육홍보부 과장〉

우리 나라 제1의 국제적인 항구도시 부산, 부산에서도 천혜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밭과 섬들이 어우러져 한쪽의 그림같은 전망좋은 곳에 자리잡은 호텔이다. 편안한 휴식처로 조화된 국내 최초의 종합레저호텔인 해운대그랜드호텔은 후손들을 위한 작품성있는 건물을 짓겠다는 선대 회장의 의지가 담긴 건물이다. 5%의 행정지시와 95%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장님의 방침아래 건물의 안전은 물론, 설비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완벽한 건물로 총공사비 1천 6백억원을 들여 무려 7년간의 대공사끝에 '96년 5월 30일 개관하였다.

이 호텔은 부산의 국내·외적인 유동인구의 휴식공간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부산·경남권의 관광지로 면모를 갖추어 관광산업의 기대와 함께 국내·외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이 기대되고 있는 시설이다.

이번 호의 우수방재건물탐방은 부산의 휴식공간이이며 관광종합호텔로 부상하고 있는 그랜드호텔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호텔은 화재안전부문에서



도 남다른 관심과 많은 시설 및 설비투자를 하고 관리면에서도 모범적인 호텔로서 협회의 부산지부로부터 우수방재건물로 추천받아 직접 방문했다.

◇ 호텔현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51-2번지에 위치하여 연건평 3만 1천여평으로 1백여평에 달하는 프리지덴살스위트와 로얄스위트를 포함해 총 3백 25개의 객실, 6개국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1천 5백명 수용규모의 회의 및 연회장, 다국적 스타일의 전문 식음료 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기존 호텔의 숙박개념

에서 탈피해 국내 최초의 종합레저호텔을 표방하며, 1천여명 수용능력의 대온천사우나, 50m 레인의 대수영장 및 회원 전용 사우나와 수영장, 대규모 볼링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특수영상과학실, 최신시설의 헬스장을 구비하고 있다.

◇ 건물구조 및 일반사항

현대 고층건물의 구조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지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철골조의 건식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데크플레이트위 스라브구조로 된 바닥과 범람판넬과 유리창으로 된 커튼월 구조의 외벽으로 된

대지면적 11,642㎡, 건축면적 6,593㎡, 연면적 102,319㎡에 특별피난계단만도 6개소에 이르는 건물이다.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호텔인 만큼 소방시설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역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초소화설비인 ABC(3.3kg) 분말소화기 507개, 자동확산소화기 28개, 대형소화기 3개, CO₂소화기 27개이며, 옥내소화전 설치개소가 전체 96개소, 스프링클러설비는 용도에 맞게 건식과 습식설비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특수용도에는 가스계 소화설비인 CO₂와 하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D-Mux 3000 R형 시스템으로 CRT Display를 설치 Light Pen으로 각 설비에 대해 제어가 가능하고 이에따른 감지기 숫자만도 각 설비용을 포함 2,913개에 달한다.

기타 방연창 및 방화샷터 설치 등 배연설비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고 지하 1층 방재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방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3인 1조씩 2교대 근무체제로 24시간 항상 대기하며 시간별 방화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 방화관리 및 조직현황

자체소방대 6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설별 점검정비반은 10개반 21명으로, 각 시

설·설비가 항상 100% 가동되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각 주방 화기책임자 수시교육, 각 업장별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훈련은 매월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요원 화화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각 주방 및 가스정압실 등의 안전시설을 매일 체크하는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 자율적 소방관리

화재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고, 또한 언젠가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반복적인 순찰강화와 화재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 등을 중점 체크하는 등 각종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만약 유사시에 대비하고 초기진화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매사 업무에 임하고 있다.

건물 신축당시부터 참여하여 현 시설관리부에서 시설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맡고 있는 김수성 차장의 이야기이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법규적인 측면에서 완벽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장님 방침아래 시공사 양서 이상으로 최고의 설비가 되도록 휴가도 반납한채 일에 매달렸다고 한다.

시공사 현장중심의 업무를 강조하는 경영층의 방침아래 모든 설비를 감독·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힘에 부치는 일도 많았다고 하며, 특히 향후 운영시의

문제될 때까지 생각하여 방화구획, 방화담퍼, 제연설비 등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협회와 관련하여는 '93년 11월 협회에 1차 도면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받고, '95년 2월 2차로 준공전 각 설비종합안전진단을 받아 시공에 반영, '96년 9월 3차로 준공후 화재위험진단 및 자체점검을 실시, 그 결과대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관계법규는 물론, 화재보험료 경감을 위해 소화설비규정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분야에서도 부산지역에서 첫번째로 안전시설이 완벽한 건물로 손꼽는데 손색이 없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 3차례에 걸쳐 협회의 현장 지도를 받아 실제의 안전과 경비절감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협회와 기술진에 대한 신뢰감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 호텔은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외국인 투자기업(재일교포)으로 등록된 호텔로서 국제적 수준의 시설과 현대적 숙박 및 휴양기능에 적합하여 지난 '96년 JCI국제대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다가오는 '97년 동아시아국제대회, 2002년 아시안 게임이 향도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최고의 서비스와 최상의 시설로서 국내·외 고객 유치에 손색없는 호텔로 명성을 떨칠것이라고 자랑이 대단하였다.